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1년 10월 24일
제1866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나해)

제 1 독 서 이사 2,1-5 |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화 답 송 시편 98(97)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로마 10,9-18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 28,16-20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때에 ¹⁶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된 복음서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목할 점은, 마태오 복음사가가 예수님을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임마누엘’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마태 1,23 참조).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임마누엘’로 불린 예수님께서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당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렇게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서 바로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전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리는 전교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교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일에만, 성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오늘은 전교를 위하여 삶을 봉헌한 선교사와 그들이 활동하는 교회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함께 기억합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전교주일

오늘은 ‘전교 주일’이다.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오늘의 특별 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 전 세계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쓴다.

선교를 위한 기도

-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 ◎ 아멘
-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맡겨 주신 하느님
지역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 저희의 사명이 하느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임을 깨닫고
복음 선포자인 저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저희에게 선교의 은사를 내려 주소서.
- 저희는 쉬는 교우들과 비신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다시금 아버지께 인도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 주님께 대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이
미약한 저희들이오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굳은 믿음과 인내의 덕을 주시고
이 지역 사람들이 마음을 밝혀
당신 품 안으로 모여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사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선교의 수호자 성녀 데레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이민자들의 수호자 성녀 카브리니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본당 주보 성인 성 정하상 바오로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힘을 체험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현존을 깨달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 구원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마태 22,9). 그 누구도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비로운 사랑에서 소외되거나 배척된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체험

복음화의 역사는, 주님께서 모든 이를 불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요한 15,12-17 참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주님과 나누는 우정 안에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시며, 더러운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하며, 참행복을 알려 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권위있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기며 경이로움과 커다란 기쁨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와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나 난관은 그들을 한 걸음 물러서게 하거나 자신 안에 갇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선교를 위한 기회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이미 많은 이들이 체험한 고통, 고독, 가난, 불의를 부각시키고 증폭시켰습니다. 보건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목으로 무관심과 냉담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유희이 생길 때, 필수적인 거리 두기 조치를 만남과 돌봄과 증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비의 사명이 긴급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사도 4,20), 곧 우리가 체험한 자비는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자 신뢰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화를 쏟아야 할 소속감과 연대의 공동체”(『모든 형제들』, 36항)를 세우고자 하는 공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기를, 형제애를 지니기를,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저마다 받은 초대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라는 올해 전교 주일의 주제는 우리 마음에 지닌 것을 우리가 저마다 ‘책임’ 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해마다 거행하는 전교 주일에, 우리는 너그럽고 기쁨 넘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는 세례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며 도와주는 모든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떠나 구원의 메시지에 목말랐던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연히 나서는 모든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소명이 과거의 일이거나 이전 시대의 낭만적인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시대에 우리 삶의 반경을 넓히고, 우리의 “관심권”(『모든 형제들』, 97항)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는 다른 이들이 비록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날마다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우리가 모두 참된 선교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제자이신 성모님께서 세례받은 모든 이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열망을 키워 주시기를 청합니다(마태 5,13-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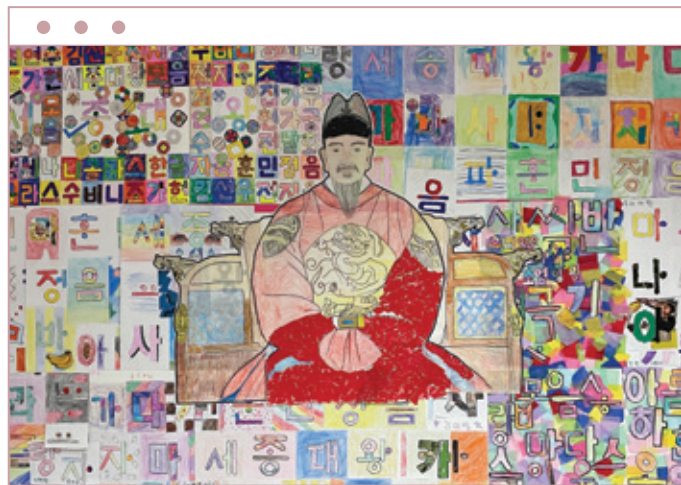
하상 한국학교

한글날 행사



하상 한국학교(교장 이정렬 마리아)는 한글날을 맞아 2주에 걸쳐 한글날 행사를 했다.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한글과 훈민정음, 세종대왕에 대해 학습했다. 이어서 16일에는 각 학급별로 세종대왕 어진과 한글을 예쁘게 디자인하여 모자이크식으로 각 학급의 작품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한 후, 체육관에서 반 별로 한 팀이 되어 한글에 대한 O X 퀴즈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상 한국학교의 학생들은 한국어 외에 한국 역사와 문화, 서예, 사물놀이, 한국무용, 한국 전통놀이, K-POP, 종이접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국어를 익히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다.



감사드립니다!

본당 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을 찾아주신
전임 신부님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전교주일 2차 헌금

- 전교주일(World Mission Sunday)을 맞아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오디션

- 일시 : 10월 24일(일) 오후 4시(하상관 음악실, B #7)
- 대상 : 7학년 ~ 12학년
자유곡 1곡, Scale, 시험(Sight Reading-당일 설정)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3 2021년 학생 견진성사 미사

- 미사 주례 : 폴 로버디 주교님
-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7시

4 제342차 울뜨레야 회합

- 일시 : 10월 29일(금) 오후 7:30 미사 후(A-1,2,3)

5 주교님과 함께 하는 알링턴 교구 마리아 순례

- 성 요셉의 해를 맞이하여 알링턴 교구에서는
기도와 마리아 순례여행날을 지정했습니다.
- 일시 : 10월 30일(토) 오전 9:30-오후 2:30
성당에서 오전 8:30에 출발합니다.
 - 장소 : National Shrine 성당

6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야외미사

- 일시 : 10월 31일(일) 오전 10시
(Bull Run Park Shelter 1, 2)
- 개인 준비물 : 바닥 깔개 및 점심식사
- 야외미사로 인해 본당에서는 31일(주일)에 모든 미사가
봉헌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11월 1일(월)은 '모든 성인의 날' 의무 대축일입니다.
- 의무 대축일 미사: 오전 6시, 오후 7:30

8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주일학교 교리교사·교무교사를 찾습니다.

- 문의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10 주일학교 CCD, CYO 전체 학부모 회의

- 일시 : 11월 6일(토) 오후 1:30 (A -1,2)
- 문의 : 박 레지나 (703) 786-2942

11 골든벨을 울려라 ~ 교리경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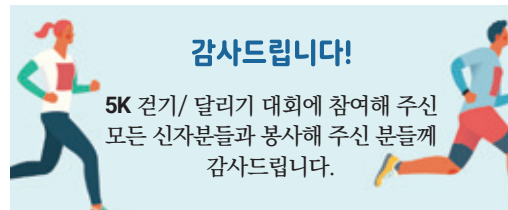
- 본당 승격 25주년과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교리경시대회를 합니다.
- 일정 : 11월 7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구역 대항과 개인전
 - 출제 범위 : 천주교교리문답과 7성사 중에서 출제됩니다.
 - 시상 : 구역별, 1, 2, 3등에 상금
 - 개인전 : 골든벨을 울리는 분께는 인천 왕복 항공권 /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면 LA 왕복항공권 수여.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https://stpaulchung.org/content/gospel-quiz>
홈페이지 > 소식과 나눔 > 나눔의 방 > 천주교 교리문답

12 2022년도 매일미사책 신청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성물부

13 성당 입구 25마일 서행 운전

- 성당앞 Rippling Pond 도로에서 25마일로 서행해
주세요. 특히 새벽미사에 오실 때 조심해 주시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에 오면서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행사 안내

- * 10월 31일(일) : 야외미사, Bull Run Park
- * 11월 7일(일) : 교리경시대회(천주교 교리문답 중심)
- *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10,1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0월 17일(연중 제29주일)

주일헌금	\$ 7,751.00
교무금	\$ 6,070.00
교무금(신용카드)	\$ 5,58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1,500.00
온라인 봉헌	\$ 2,080.00
합계	\$ 22,98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6시 뉴스 시작 1분 전에
김태진 신부님의 1분 묵상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10월 27일(수) 오전 6:15-6:45
10월 3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하상 초대석 - 박용식 신부님 인터뷰 1부
- 본당 공지사항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들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교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28일(목) 오후 5:00-6:00
10월 29일(금) 저녁 8:00-9:00
10월 31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신부님 주일미사 강론
2. 특강 : 김대우 모세 신부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9) -
너에게 하고 싶은 말 (2)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 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